



회원사 동향

현대중, 고효율 유도전동기 개발

현대중공업(대표 최길선)이 고효율 고압 유도전동기를 개발,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나섰다. 현재 전동기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35%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최근 국내 최대 효율의 고압 유도전동기 'H-시리즈'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년 6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대형 팬(Fan), 펌프, 송풍기, 컨베이어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용량 250마력에서 1천100마력의 전동기 6종(품명 H-시리즈)을 개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고압유도전동기는 기존제품의 동일 크기(400프레임: 전동기의 바닥에서 중심까지의 높이가 400mm인 경우)에 비해 1천250마력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고효율제품이다.

반면에 크기는 1천급 전동기 기준으로 5.43m³에서 2.75m³로 절반이지만 출력이 12~15%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특히 내구성이 우수한 절연시스템을 사용해 기존제품(30년에서 40년)에 비해 수명이 10년 이상 길며, 냉각효율과 내화학적, 견고성 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제품보다 소음을 3~5db 정도 낮은 환경친화성 제품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고압유도전동기는 기존제품에 비해 품질 및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며 "오는 7월부터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본격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이시스, 서울 사무실 이전

디이시스(주)(대표: 이창근)가 대고객 및 거래처에 보다 신속한 제품공급 및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서울 영업부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본사 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일자 : 2003. 6. 1 이전주소(본사, 공장)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257-18

변경전화번호(영업부)

- 전화 : 031-996-5661, 02-702-5661(중전과 동일) - 팩스 : 031-996-5564, 02-702-5564(중전과 동일)

일진전기, 기업설명회 개최

중전기 종합메이커로의 도약을 목표로하고 있는 일진전기(대표 홍순갑)가 지난 6월20일 열빈(서울 여의도소재)에서 2003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및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일진전기의 2003년도 상반기 예상실적은 매출액 781억원, 영업이익 114억원으로 영업이익을 분석해 보면 사업계획 대비 3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특히, 고수익품목(HV Cable 등)에 따른 57억원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또한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적자사업부문 매각(주조사업, '02년 상반기 적자 8억) 및 원가절감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로는 매출/이익목표 달성, 중국수출 본격추진, 차입금 상환 등으로 향후 3개년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3년에 매출액 1,765억원 영업이익 261억원, 2004년에는 매출액 2,150억원 영업이익 320억원에 이르고, 2005년에는 매출액 2,600억원에 영업이익은 40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매출 및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전략으로는 ▲기존사업 현상 유지, 중국 수출, 신제품(사업) 중점 매출 ▲신규사업발굴로서 직접부하제어사업, 전력에너지절감 ESCO사업,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초전도분말/선재사업, DPF(배기가스정화장치)사업, 탈질촉매사업 추진 등이다.

LG산전, 유럽형 개폐기 KEMA 인증 획득

LG산전(대표 김정만)은 중동·동남아시아를 겨냥해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유럽형 배전용 개폐기(RMU: Ring Main Unit)로 네덜란드 K.E.M.A.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19일 밝혔다.

K.E.M.A. (Keuring Van Elektrotechnische Materialen)는 네덜란드에 소재한 전력시험소로 세계적인 전력시험 인증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럽형 개폐기는 이상 전류 발생시 이를 감지해 사용자 측의 부하기기들을 보호해주는 제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 등지에서 사용된다.

LG산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 가운데 최초로 유럽형 개폐기를 개발한 데 이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인증까지 획득했다” 며 “2300만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시장과 1200만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현대중, 신제품 기술세미나 개최

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본부장: 김영남)는 6월 10일 광주 상무지구내 CENTRAL 호텔에서 중저압차단기, 전동기, 인버터, 디지털보호계전기 신제품 기술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저압차단기, 전동기, 인버터, 디지털보호계전기 등 다양한 신제품, 데모킷, 부품 등 실물이 전시되었으며 디지털보호계전기의 경우 세미나 도중 데모킷을 이용한 시연도 실시되었다.

전라도, 광주지역 대형플랜트, 배전반업체, 부하기기업체, 관공서 등에서 고객 170여명이 참석하여 세미나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고객의 호응에 힘입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용 전기기기에 대한 영업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도옵틱스, 투자설명회 개최

광용용시스템 전문기업인 (주)해도옵틱스(대표 윤태현)가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도옵틱스는 지난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제1회의실에서 투자자 및 사업파트너 50여명을 불러모아 1차 투자 및 사업설명회 개최에 이어 2차 설명회를 지난 13일 충청북도 증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1교육장에서 개최했다.

해도옵틱스는 국내 유일의 광전류계측 장치를 개발, 생산하는 전력벤처기업으로 광CT, 광PT, 광센서, 광전자식개폐기, 광MOF, 태양광표시등, SF6가스MOF(건식) 등을 생산하고 있다.

윤태현 대표는 “지난해 한전의 중소기업연구개발과제 업체로 선정, 최근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8월과 9월 광MOF 20대와 광전자개폐기 등을 납품하게 됐다”며 국내에서는 첫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회사는 이번 한전 납품으로 1억1,4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고 설명하는 등 올해 광CT 판매 계획으로 30억원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영업 및 마케팅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밖에 무기류 사업과 지문인식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승기 대리는 “해도옵틱스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지문인식사업과 무기류 사업 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위한 설명회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광이앤씨, 콤팩트형 GIS 개발

진광이앤씨(주)(대표 김광우)가 기존 제품보다 부피를 20~30% 줄인 콤팩트형 GIS를 개발 시장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폐기 전문업체인 진광이앤씨는 지난 3년 동안 총 10억원을 투입해 최근 24kV용 C-GIS(큐비클형 SF6가스절연개폐장치)를 개발, 완료했으며 앞으로 한전 변전소에 공급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이

를 위해 지난달 26일 한전으로부터 GIS 등록업체로 지정돼 공급자격을 얻었다.

진광이 개발한 C-GIS는 차단부를 큐비클 외부탱크에 내장한 기존 제품과 달리 큐비클 내에 장착함으로써 전체 부피를 20-30% 줄인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변전소의 옥내화가 확대됨에 따라 C-GIS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 결국은 기존 제품이 C-GIS로 대체될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유승호 진광이엔씨 상무는 “앞으로 36kV C-GIS, 45kV C-GIS, 민수용 단모선 C-GIS 등을 추가 개발해 나갈 것이며 36kV C-GIS는 내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태광이엔씨, 미디어 컨버터 개발

태광이엔씨(대표 이성우)는 근,원거리 통신케이블을 연결시킬 수 있는 광통신 솔루션인 미디어 컨버터를 개발, 지난 6월부터 본격 시장공략에 나섰다.

근거리 UTP(Unshielded Twisted Pair)케이블과 광케이블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제품은 최고60km까지 연장할 수 있어 원거리 네트워크 구성에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1개의 UTP케이블에 12개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거리 네트워크도 쉽게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과 공간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을 765kV감시제어시스템 및 예방진단시스템 등에 적용하면 5천만원 가량의 설치비용등 절감효과가 있을 것” 이라며 “특히 통신관련업체가 이 제품을 사용해 구내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시공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태광이엔씨는 주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통신, 파워콤,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태광이엔씨는 지난 2월 16일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과 14억4천만원 규모의 765kV변전소 감시제어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총31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옴니시스템, 「엠시스」브랜드로 통합

첨단 원격검침시스템 전문 개발기업인 옴니시스템(주)(대표 강재석)는 자사의 원격검침시스템을 ‘엠시스(AMSYS: Auto Telemetry System)’ 라는 브랜드로 통합하고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키워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